결혼 못하는 이유

교제한 지 2년이 넘은 한 커플이 있었다.

여자는 남자가 프러포즈하지 않자 초조해진 나머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남자는 못 들은 척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외면했다.

그러자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은 여자가 따졌다.

"도대체 결혼하자는 말만 나오면 왜 피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말을 꺼내지도 못해."

"누가 그렇게 반대를 하나요? 아버님이요?"

"아니 ……."

더욱 답답해진 여자가 흥분해서 대답을 재촉했다.

"그럼 어머님? 형제들?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자 남자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내 마누락가……."